



KIA 타이거즈가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한 이우성을 외야로도 활용하면서 공격 극대화를 노린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이우성 '이상 무'...KIA '전력 UP'

이창진·한승택 내리고 김호령·김규성·최지민 '콜업' 최형우 80% 이상 회복...기술훈련 돌입 '복귀 시동'



KIA 타이거즈가 이우성으로 전력 극대화에 나선다.

KIA는 20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외야수 이창진, 포수 한승택, 투수 김민재를 엔트리에 제외한 KIA는 외야수 김호령, 내야수 김규성, 투수 최지민을 콜업했다.

최지민은 예정됐던 콜업이다. 이범호 감독은 지난 10일 경기력 조절을 위해 최지민을 엔트리에 말소했다. 10일 후 복귀를 예고했던 이범호 감독은 "재충전됐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투수니까 기용해야 한다. 10일 지나서 좋아졌다고 하니 열심히 던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진은 허리 부상으로 인한 말소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3~4일 정도 쉬어야 하는 만큼 엔트리에 말소해 차분하게 회복 시간을 주고, 전력 운영에 빈틈이 없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창진이 부상에서 빠진 이날 이범호 감독은 이우성을 좌익수로 투입하고, 변우혁을 1루에 배치하는 라인업을 선보였다.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한 이우성을 외야로도 활용하면서 공격 극대화를 노리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맞춰 내야 강화 차원에서 김규성의 콜업을 선택했다.

이범호 감독은 "이우성이 외야로 움직이면 내야수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규성이 내야를 다 소화하고, 퓨처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올렸다"고 설명했다.

LG전 총력전을 투입했던 한승택은 9월 1일 확대 엔트리에 맞춰 재콜업할 방침이다.

엔트리 변화 속 이우성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이우성은 지난 6월 27일 롯데 원정경기에서 우측 햄스트링 힘줄 부상을 당하면서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 7월 1군에 복귀했다.

햄스트링 부상이었던 만큼 신중하게 이우성을 지켜봤던 이범호 감독은 '이상 무'를 이야기했다.

이범호 감독은 "이제는 회복이 됐다고 생각한다.

부상 이후 2달이 됐고, 복귀 후 10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1군에 맞춰 몸상태가 다져졌다고 생각한다. 외야 수비도 문제없다고 해서 외야로 출장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LG전에서 기록한 도루도 긍정적이다. 이범호 감독은 "뭉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니 과감히 뭉 수 있는 것이다. 두려우면 스타트가 느릴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살았으니까 부상에 대한 부담을 떨치는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우성도 18일 경기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이우성은 "돌아와서 초반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부담이 있었다. 18일 경기에서 부상 후 첫 멀티히트도 기록했고 도루도 만들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다시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지민과 함께 엔트리에 제외됐던 사이드암 임기영의 복귀는 미뤄졌다.

임기영이 목부위 담증세를 보이면서 이범호 감독은 컨디션을 지켜본 뒤 콜업을 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우측 내복사근 손상으로 재활군이 된 최형우는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최형우는 19일 선한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부상 부위가 80% 이상 회복됐다는 소견을 받으면서, 기술훈련에 돌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울산 상대 '두 토끼' 사냥 나선다

오늘 안방서 코리아컵 4강 1차전 25일 K리그1 28R 등 3연전 격돌 전 시즌부터 4연승 '자신감 충전'

광주FC가 울산HD와의 3연전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광주는 21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울산을 상대로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4강 1차전 홈경기를 벌인다.

강원전 패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바쁜게 움직여야 하는 광주다.

광주는 지난 18일 1위 강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아사나의 페널티킥과 상대의 자책골로 2-0의 리드를 잡고도 내리 3골을 허용하면서 2-3 역전패를 당했다.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던 광주는 '득점 1위' 강원의 화력에 막혀 4연승을 이루지 못했다.

아쉬움은 잠시, 갈 길이 멀다. 광주는 21일 다시 그라운드에 오른다.

울산을 상대로 코리아컵 4강전 홈경기를 갖는 광주는 25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울산을 만나 K리그 1 28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이어 28일에는 울산 원정에 나서 코리아컵 결승 티켓 주인공을 확정하게 된다.

울산과 3연전을 치르게 된 광주는 첫 경기에서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올 시즌 울산과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낚았다. 지난 시즌까지 따지면 울산전 4연승 중이다.

강원전에서 승리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최근 흐름도 좋다.

지난 9월 전북현대와의 원정에서 시즌 첫골로 결승골을 기록했던 아사나가 강원 원정에서도 페널티킥 골을 기록하면서 '해결사'의 부활을 알렸다.

이희균도 든든하다. 강원전에서 골대를 때리며



광주FC 이희균(왼쪽)이 지난 9일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와 2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공을 몰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이희균은 올 시즌 거침없는 플레이로 광주 공격을 이끌고 있는 선수다. 이희균은 지난 7월 울산전 결승골 주인공이기도 하다.

아사나와 이희균으로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 이범호 감독이 들고나올 로테이션도 관심사다.

창단 후 첫 코리아컵 4강에 진출한 광주는 우승컵까지 노리고 있다. 파이널A라는 목표도 놓칠 수 없다.

울산과의 3연전 '뒷심 싸움'을 위해 후반 교체 투입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광주는 빠른 발과 기술을 갖춘 가브리엘과 김한

길, 중거리 슈팅이 좋은 이강현 그리고 코리아컵 8강전에서 연장 혈투를 승리로 이끈 빅토이 '조커'로 꼽힌다.

무더운 날씨에 연달아 경기를 치러야 하는 선수들의 체력 안배도 중요하다.

이번 경기 이후에도 연달아 울산과 힘겨투기를 해야 하는 만큼 이번 경기는 '1승' 이상의 가치가 있다.

광주가 집중력 있는 승부로 울산전 우위를 이어 코리아컵과 리그에서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92분 '침묵의 질주'

토트넘, 레스터와 개막전 1-1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EPL) 10번째 시즌 첫 경기에서 풀타임 가까이 소화한 가운데 팀은 승격팀 레스터시티와 비겼다.

손흥민은 20일 영국 레스터의 키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의 2024-2025 EPL 1라운드 원정 경기에 토트넘의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 후반 추가 시간 2분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2015-2016시즌 토트넘에 입단한 토트넘은 이 경기로 EPL 10번째 시즌이자, 이전 독일 분데스리가 경력을 더하면 유럽 1군 무대에서 15번째 시즌을 열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17골 10도움을 올렸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작성하지는 못했다.

2022-2023시즌 EPL 18위에 그쳐 강등됐다 가 지난 시즌 챔피언십(2부) 우승을 차지해 돌아온 레스터는 첫 경기에서 지난 시즌 EPL 5위 팀 토트넘과 승점 1을 나눠 가졌다.

최전방에 새 얼굴 도미니크 솔란케를 세우고 2선에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 브레넌 존슨을 배치한 토트넘이 초반부터 부지런히 두드리는 양상이었다.

전반 8분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왼발

크로스에 이은 솔란케의 헤더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전반 14분엔 페드로 포로의 크로스 이후 다시 솔란케의 헤더 슈팅이 나왔으나 마스 헤르만센 골키퍼가 잡아냈다.

전반 18분 코너킥 이후 혼전에서 나온 공을 손흥민이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왼발로 때린 것은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다.

공세를 퍼붓던 토트넘은 전반 29분 시즌 첫 득점을 뽑아냈다.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이 내준 공을 매디슨이 크로스로 연결했고, 포로가 달려들며 헤더 마무리 선제골을 넣었다.

후반전 초반에도 여러 차례 기회를 맞이했으나 살리지 못하던 토트넘은 결국 후반 12분 일격을 당했다.

레스터의 제이미 바다가 골대 앞에서 머리로 받아 넘어 개막전에서 통산 8번째 골을 폭발했다. 바다는 토트넘을 상대로만 9골을 터뜨리는 강한 면모도 이어갔다.

토트넘은 후반 26분 부상 악재도 만났다. 미드필더 로드리고 벳랑쿠르가 코너킥 상황에서 공중에 뛴다가 내려오며 그라운드에 머리와 목 쪽을 강하게 부딪친 뒤 고통을 호소, 결국 들것에 실려 나갔다.

후반 추가 시간엔 손흥민과 다리 쪽 통증을 느낀 포로를 빼고 히샤를리송과 제스 스펜스를 투입해 앞서 가는 골을 노렸지만, 끝내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7월 K리그 '양민혁 천하'

최연소 '이달의 선수상' 등 3관왕 27경기 8골 5도움 '강원 에이스'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의 '초신성 공격수' 양민혁(18)이 7월 K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받으면서 개인상 3관왕(영플레이어-이달의 골-이달의 선수)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양민혁이 K리그 공식 비디오게임 파트너 일렉트로닉아츠가 후원하는 7월 'EA스포츠 K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7월 '이달의 선수상'은 K리그1 21~25라운드 활약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후보에는 양민혁, 세정야(대구), 오베르단(포

항), 타이고(전북)가 이름을 올렸다.

이달의 선수상은 한 달간 열린 K리그 경기에서 수훈 선수(MOM), 베스트11,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선수 중 프로축구연맹 기술연구그룹(TSG) 투표(60%)를 통해 후보군을 먼저 추린 뒤 선정한다.

이 후보들을 대상으로 K리그 팬 투표(25%)와 EA스포츠 FC온라인 유저 투표(15%)를 진행하고, 세 항목의 결과를 더해 가장 높은 환산 점수를 획득한 선수에게 상을 준다.

양민혁은 7월에 열린 24라운드 제주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라운드 MVP에 선정됐고, 이어서 25라운드 전북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7월 '이달의 선수상' 투표 결과 양민혁은 TSG 투표에서 공동 1위, K리그 팬투표에서 3위, FC온라인 투표에서 1위에 오르며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앞서 7월 영플레이어상과 이달의 골까지 받았던 양민혁은 이달의 선수상까지 독식하며 빌드플레이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섭렵하고 3관왕의 기쁨을 만끽했다.

특히 양민혁은 18세 3개월(7월 기준) 만에 이달의 상을 받으면서 2021년 9월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던 조영욱(서울·당시 22세 7개월)의 역대 최연소 수상 기록을 경신했다.

더불어 K리그 통산 한 선수가 특정 월에 이달의 선수상, 이달의 영플레이어, 이달의 골을 한꺼번에 받은 것 역시 양민혁이 최초라는 게 프로연맹의 설명이다.

올 시즌 전프로 계약 선수로 K리그1에 데뷔한 양민혁은 지난 6월 정식 프로 선수로 계약을 전환했고, 내년 1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입단을 앞두고 있다.

양민혁은 이번 시즌 K리그1에서 27경기에 출전해 8골 5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강원의 선두 질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연합뉴스